



날은 **홍범도장군**

2019.09 제22호 가을

발행인 우원식 편집인 홍순계 www.hongbeomdo.com 창간 2014년 6월 1일

기억해야 할 승리의 역사



영화 '봉오동 전투' 포스터

홍범도 장군의 삶에 주목한 음악극 〈극장 앞 독립군〉 단체관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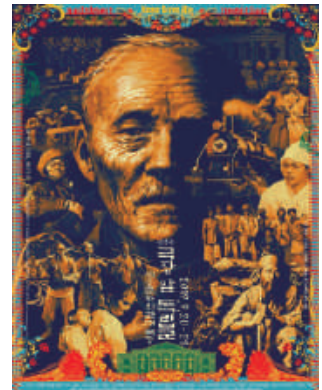
홍범도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비롯한 회원 150여명은 지난 9월 21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음악극〈극장 앞 독립군〉을 단체관람 했다. 이번 음악극은 기념사업회에서 후원했다. 세종문화회관은 개관 41년 만에 최초로 산하 7개 예술단 모두가 참여하는 대규모 창작음악극 〈극장 앞 독립군〉을 20 일~21일 양일간 올렸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및 내년 봉오동 전투의 승전 100 주년을 기념하며 봉오동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의 인간적 면모에 집중해 구현하였다.

무대에만 300여명이 출연하는 대규모 음악극 〈극장 앞 독립군〉은 예술단 통합 창작 브랜딩 공연으로 홍범도 자신의 일대기를 연극으로 상연하게 되는 내용의 메타극 방식으로 제작되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싸움에서는 늘상 낙오하고 패배하였지만, 조국을 위한 싸움에서 영웅으로 거듭난 홍범도는 극장이라는 공간을 통해 두려움 속에서도 진정한 싸움의 의미를 찾아간다. 극 내내 흐르는 대중가요, 모던 록, 국악, 재즈 등의 다양한 장르의 총 42곡의 음악들은 작중 내적 흐름을 연결하며 드라마를 더욱 다채롭고 입체적으로 만들고 있다.

이번 작품을 총연출한 김광보 연출은 “〈극장 앞 독립군〉은 최근의 시대적 상황을 미루어보면 민족주의적 성향이 짙은 작품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으나 이 작품은 홍범도 장군의 삶에 주목한 음악극이다. 홍범도 장군의 삶은 굉장히 쓸쓸하고 외로웠던 삶이었다고 생각했다. 그 점에 주목했다.”라고 작품의 제작의도를 전하며 “독립운동가를 다루며 민족주의, 애국심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 작품에서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인간 홍범도'의 삶이다. 그리고 폐쇄적전의 극장과 폐망해 가는 조선, 현대 대한민국이 모두 맞닿아 있을 것이다. 마지막 연출, 마지막 공연이 그들의 삶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그때나



지금이나 매한가지 많은 부분을 희생하고 감내해야 하는 현대의 대한민국의 연극계는 상당히 닮아 있다.”라며 작품에 숨겨진 의미를 전했다.



카자흐 외교장관 방한...홍범도 장군 유해봉환 논의



카자흐스탄 크질오르다에 묻혀 있는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내년 6월7일 '봉오동 전투 100주년'에 맞춰 국내에 봉환하는 것이 추진되고 있다. 아탐쿨로프 카자흐스탄 외교장관은 9월 16일 방한하여 이낙연 국무총리와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회담을 가졌다. 홍범도 장군 유해봉환 문제는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국빈방문 때 카심-조마르트 토크야예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의제였다. 그 후속논의가 이번에 이뤄진 것이다. 향후 진행되는 한국-카자흐스탄 간 실무급 협의 등을 통해 계속 구체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고려극장 '날으는 홍범도장군' 초청공연 단체관람



기념사업회는 지난 6월 23일 저녁 7시, 500석 규모의 대학로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에서 고려극장의 '날으는 홍범도장군' 연극을 단체관람 했다. 이 날 박원순 서울시장, 도올 김용옥 선생, 정재숙 문화재청장, 서주석 전 국방부 차관과 김좌진, 이범석, 최운산 장군 등 여러 독립운동가 단체에서도 공연장을 방문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공연은 고려극장 극작가인 태장춘의 원작(1942년작)을 개정 및 각색한 작품으로, 홍범도 장군의 독립 투쟁 이야기를 담았다.



고려극장 연극 공연팀 국회관람

고려극장 연극 공연팀은 공연을 마친 다음날인 6월24일 국회를 방문하였다. 고려극장 이류보위 극장장, 홍범도 역을 맡은 최로만 배우를 비롯한 연극팀은 우원식 이사장 의원실에서 차담회를 가진 후, 국회의사당을 관람했다. 국회 관람 후, 홍의락의원과 우원식 이사장과 함께 만찬을 가지며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독립운동가 웹툰 캐릭터 국회 전시회 공동주최



홍범도장군 캐릭터 앞에서 허영만 작가, 박명숙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와 함께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박명숙)과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이사장 우원식)는 오는 8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 전시장에서 독립운동가 웹툰 론칭기념 국회전시 '위대한 시민의 역사展'을 개최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성남문화재단의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의 성과를 소개하고,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주요 웹툰을 선보였다.

특히 홀로그램을 활용한 미디어 전시로 기획되어 더욱 눈길을 끌었다.

8월 7일 오전11시 진행된 전시 오프닝 행사에는 의열단장 김원봉 웹툰을 제작하고 있는 허영만 작가, 홍범도 웹툰을 제작하고 있는 김진 작가를 비롯해 10여명의 만화인들이 자리를 빛냈다. 사회는 독립운동가 신영호 선생의 후손인 배성재 아나운서가 맡아 더욱 의미를 더했다.

우원식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일본군을 상대로 역사에 길이 남을 승전을 거둔 홍범도 장군도 한때는 머슴이었듯, 독립운동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닌 우리주변의 평범한 사람들의 용기가 더해진 역사였다. 이번 전시가 이런 위대한 시민의 역사를 기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영화 <봉오동 전투> 기념사업회 특별시사회 개최

용산CGV 406석 규모로 기념사업회 회원대상으로 개봉 전 단체관람

유은혜 사회부총리,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거성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등 각계각층에서 참석

기념사업회는 8월 4일(일) 오후6시 용산 CGV 4관(406석)에서 일제강점기 독립군의 첫 번째 승리를 그린 영화 <봉오동전투>의 특별시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기념사업회 회원들과 정부관계자, 정치계, 독립기념단체 인사들이 극장을 찾아 영화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기대감을 모았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거성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을 비롯하여 박재민 국방부 차관, 정진경 육군사관학교장, 김원웅 광복회장, 김지호 재향군인회장, 독립기념 단체 등에서도 참석한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김현권 의원, 홍의락 의원, 은수미 성남시장, 한왕기 평창군수 등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영화를 상영하기 전엔 원신연 감독, 우원식 기념사업회 이사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의 무대인사가 진행됐다.

영화 <봉오동 전투>는 1920년 6월, 독립군이 일본 정규군을 상대로 거둔 최초의 승리를 영화한 작품이다. 봉오동전투는 특정한 인물들이 아닌 무명의 영웅들을 재조명하고, 일제에 강력하게 저항하고 완벽히 승리하는 통쾌한 이야기를 그렸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최근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이후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 조치에 따라 국내 일본 제품 불매 운동 및 반일 감정의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더욱 주목 받고 있는 작품이다.

우원식 이사장은 “봉오동전투는 한 줄 이름조차 남아있지 않은 농민과 노동자들이 만들어낸 승리의 역사”라며, “1910년 국권 침탈에 이어, 2019년 경제침략이 노골화되고 있는 이때, 모두가 힘을 모아 승리로 이끌었던 봉오동전투의 역사적 순간을 영화를 통해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화가 끝나고 주요 내빈과 회원들과 함께 근처 호프집에서 뒷풀이를 하며 영화의 여운을 함께 느끼기도 했다.



육군사관학교 영화 '봉오동전투' 단체관람

우원식 이사장, 육군사관학교 방문해 사관생도 격려



8월30일 육군사관학교는 학교 장병 및 생도들의 독립군 정신을 계승과 정서함양을 위해 영화 '봉오동전투'를 단체관람 했다. 육군사관학교장 정진경 중장을 비롯해 생도대장, 교수부장, 인사행정처장, 공보정훈실장 등이 참석했으며 생도 1,200여명이 함께 관람했다. 이날 단체관람은 육사 뿐만 아니라 해군사관학교장 김종삼 중장, 공군사관학교장 박인호 중장, 국군간호사관학교 권명옥 준장도 함께 관람해 더욱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우원식 이사장은 “독립전쟁의 첫 승리의 역사인 봉오동 전투를 기억하고, 그 정신을 계승해 가는데 기념사업회가 최선을 다하겠다”며 영화 관람 전 인사말을 전하고 사관생도들을 격려했다.

영화 <봉오동전투> 감상평



홍범도합 무장관 소령 김민규

우리민족의 정향과 승리의 역사를 기록한 영화

영화 「봉오동 전투」는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이한 올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승리의 역사’를 다시금 떠올리게 하는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첫째**, 이 영화는 남북분단과 냉전시기를 거치면서 잘 알려지지 않았던 홍범도 장군과 만주 무장독립군들의 활약을 재조명했고, **둘째**, 일제 강점기 치하 어려운 환경에서도 국권회복을 위해 헌신한 독립 운동가들의 희생과 노력을 되새길 수 있게 했다. **마지막으로** 일제강점기를 그린 기존의 작품들은 고통 받는 우리 민족의 모습을 소재로 삼는 경우가 많은데 비해, 저항과 승리의 역사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나는 의병에서 독립군, 광복군으로 이어지는 국군의 뿌리 중심에 계신 홍범도 장군의 정신을 계승한 홍범도합 승조원으로서 묵묵히 헌신하셨던 독립군 용사들의 뜻을 받들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조국 해양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근무할 것을 다짐한다.

봉오동 전투, 잊지 못할, 잊지 말아야 할 전투

육군사관학교
4중대 4학년 사관생도 김경민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우리들의 선배들은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셨다. 누구도 알려주지 않고, 그 어떠한 부귀와 명예를 바라지 않고, 오직 애국심 하나만으로 고귀한 생명을 바치셨다. 그런데 100년이 지난 지금의 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극 중 황해철은 이렇게 말했다. '독립군 수는 셀수가 없어. 왜지 알아? 어제 농사짓던 인물이 내일 독립군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야.' 어제 팥이와 낫을 들고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내일이면 총과 칼을 들고 적들과 목숨 걸고 싸웠다. 지금도 나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앞에 묵념을 올릴 때 고민한다. 이 분들의 고귀한 희생으로 지켜낸 대한민국을 온전히 지킬수 있을까? 이 모든 의문에 당당히 'YES!' 라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선배들이 오로지 애국심만으로 모든 걸 희생하셨던 그때처럼!

독립군이란 이름의 무게와 의미에 대해서

육군사관학교
6중대 1학년 사관생도 김해인

독립군이라는 이름이 가진 무게와 의미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해보았을까. 단지 내 나라, 내 조국, 나의 쉼터이자 우리 모두의 보금자리를 지키겠다는 신념으로 소총을 쏜 자들의 마음을 우리는 얼마나 깊게 헤아려보았을까. 영화를 보고 난 후, '처음 육군사관학교에 발을 내딛을 때 품었던 그 충성심과 애국심을 나는 과연 여전히 지니고 있는가'란 의문이 들었다. 더불어 이토록 간절히 지켜낸 우리의 나라 그리고 영토를 보호하는 중대한 책무에 대해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반성을 불러일으켰다. 영화 봉오동 전투는 독립을 위해 목숨 바쳐 무장투쟁을 전개한 독립군 한명 한명의 모습에 초점을 두었다. 이는 단순히 몇 줄의 글이 서술한 역사적 사실이 아닌 독립군, 그들이 가졌던 숭고한 정신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게 만들었으며 조국을 위해 보다 건강한 정신과 신체를 가진 사관생도로 스스로를 단련시켜야함을 다짐하도록 했다.

영화 <봉오동 전투>의 감독 특별인터뷰

6년간 공부하면서 이 영화를 준비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봉오동 전투>를 영화로 해야겠다고 생각한 계기는?

“카메라는 불행한 일들과 그들이 잊혀지는 것에 대한 무기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장 빔 벤더슨 감독이 한 말입니다. 저 역시 카메라와 함께 살아가는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불행한 일들과 그들이 잊혀지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책임감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역사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한 영화를 통해서 관객들과 만나고 싶다는 열망이 ‘봉오동전투’를 만들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실제 역사를 기반 한 영화인 만큼 영화 제작 과정에서 모든 고증 자료를 최대한 모았습니다. 다만 역사적으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분 창작적인 부분들이 가미가 되었는데, <봉오동 전투>는 이 비어있는 역사적인 사실들 속에서, 봉오동으로 일본군을 유인하기 위한 이름 없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을 것이라는 영화적 이야기를 가미시켰습니다.

저는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이 이 기회를 통해 조금 더 세상 밖으로 나왔으면 하는 바람들을 크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봉오동 전투>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와 평범한 민초들이 지키고자 했던 나라의 의미와 그들의 희생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봉오동 전투>를 통해 감독으로서 꼭 보여주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인가?

봉오동 전투는 주제적으로 ‘저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항은 매우 숭고한 정신입니다. 봉오동 전투는 국권 침탈 시대를 다루는 방식 자체가 기존의 영화들과 완전히 다른 영화입니다. 지금까지의 영화들이 피해의 역사, 지배의 역사, 굴욕의 역사에 대해서 다뤘다면 봉오동 전투는 저항의 역사, 승리의 역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영화입니다. 저는 봉오동 전투를 통해서 국권 침탈 시대를 이야기해왔던 그동안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국권 침탈 시대는 외면하고 싶은 아픈 역사가 아니라 기억해야 할 자랑스러운 저항의 역사라고!

반일 감정 속에 항일영화로 더욱 주목받은 것 같다. 100년 전과 지금이 같은 점과 다른 점이 있다면?



영화감독

원신연

매일아침 일상에서 접하게 되는 뉴스를 보면, 마치 역사가 순환이라도 되는 것처럼 100년 전과 지금의 역사가 또다시 되풀이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특히, 아직까지 청산되고 있지 않은 일제의 잔재들은 사회 곳곳에 암처럼 자리 잡고 몸집을 불려가며 전이와 확산을 노리고 있고, 국제 질서 역시 100년 전으로 회기 한 듯, 자국의 이익만을 최우선으로 삼고 우방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 속에서도 100년 전과 다른 건 이제 대한민국은 어떠한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인한 나라이며, 나아가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인한 민족혼으로 외세의 침략을 이겨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특별시사회에 참석하기도 하셨다. 특별시사회에서 함께 했던 소감과, 기념사업회 회원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영화를 준비하면서 홍범도 일지를 통해 더욱 더 깊이 알게 된 홍범도 장군은 항일 독립전쟁 역사에서 가장 눈부신 전과를 올린 독립투사였으며 영웅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살자고 피 흘려 싸우느냐, 다 저 애들의 앞날을 위해서지.” 라는 홍범도 장군의 말씀은 영웅을 넘어서 그가 얼마나 인간적인 면모를 지녔는지, 또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아주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영화<봉오동 전투>를 계기로 홍범도 장군의 일대기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영화가 더 늦기 전에 꼭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울러, 영화 <봉오동 전투>를 힘차게 응원해 주셨던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회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를 위해 힘써 일해 주시는 우원식 이사장님, 이종찬 명예이사장님께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려인 강제이주사를 다룬 가장 생생하고 뜨거운 노래

시집 <강제이주열차> 발간에 대하여



이동순
(시인, 영남대 명예교수)

홍범도 장군은 하나의 운명

이제 홍범도 장군의 존재성은 나에게 하나의 운명이 아닌가 한다. 1983년에 집필을 시작하여, 무려 20년 만에 완성했던 장편 대하 서사시 <홍범도>(전5부작10권) 때문이다. 어쩌면 내가 그 작품을 쓰겠다는 포부를 가진 이후로 나의 모든 오감은 오로지 홍범도 장군을 역사의 표면에 드러내겠다는 일념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다. 돌이켜보면 이 모든 것이 1923년 대구형무소 투옥 중 일제의 모진 고문으로 순국하신 내 조부님 이명균 의사의 유훈이 있었기 때문이다. 할아버지와 손자의 육신은 이승에서 서로 대면하지 못했지만 세상을 떠나신 할아버지의 영혼은 바람결에 손자의 가슴으로 전해졌다. 번개와 천둥으로도 전해졌다. 새소리와 무언의 숨결로도 전해졌다. 문학을 공부하고 시창작의 길에 접어든 손자의 활동방향과 선택이 과연 어느 쪽으로 펼쳐져야 한다는 것을 항시 일러주셨던 것이다.

크즐오르다 묘소에 세워진 동상을 떠올리며

2003년에 서사시 <홍범도> 발간을 마무리하고, 이후 오랫동안 허탈감에 잠겨 있었지만 다시 나를 창작의 뜨거운 현장으로 비로소 불러일으킨 분은 바로 홍범도 장군이다. 지난해 가을,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에서 장군의 서거 75주기, 탄신 150주기를 맞이하여 추모시를 요청해왔다. 그 순간 어떤 불같은 의욕이 활활 타올라서 밤 도와가며 한 편의 작품을 완성했다. 그것이 <아, 홍범도 장군>이다.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의 묘소에 세워진 동상을 떠올리며 늘 고국 방향으로 서서 후손들이 잘 되기를 염원하고 현실을 걱정하시는 어법으로 쓴 것이다. 이 작품을 보냈더니 뜻밖에도 너무 좋은 반응을 보내왔고, 해당 작품을 크즐오르다와 알마티에서의 추모행사장에서 직접 낭송해주시기를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추모행사에서는 새로 쓴 다른 작품을 낭송하게 되었다.

시인으로서 엄중한 역할과 사명느껴

카자흐스탄은 사실 두어 차례 다녀왔지만 정작 그렇게 갈망하던 장군님 묘소는 가지 못했었다. 그래서 지난해 이루어진 카자흐스탄 방문은 대단한 감동의 연속이었다. 고려인협회 회원님들과의 감격적인 만남, 크즐오르다 문화회관에서 열린 홍범도 장군 추모회, 묘소 방문과 헌화, 알마티 고려극장에서 열린 추모식 참석과 시낭송, 현지 고려인들의 뜨거운 반응, 고려신문 방문 등등 감동의 나날을 보내고 돌아왔다. 다니는 동안 내가 시인으로서 해야 할 엄중한 역할과 사명이 있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고려인 강제이주 역사와 그 전모를 생생하게 시작품으로 재현해내는 일이었음을 확연히 알았다. 이러한 깨달음도 결국 나의 조부님, 홍범도 장군님께서 바람결에 전해주시는 유촉(遺囑)이었음에 틀림없다.

고려인들에게 눈물로 읽힐 책이 되길

카자흐스탄을 떠나기 전, 나는 호텔에서 이미 여러 편의 시작품을 썼고, 돌아와서 불같이 뜨거운 밤을 밝히었다. 많은 자료를 찾아서 읽고 수집하고, 해매 다녔다. 그리고 내가 1937년 당시 강제이주열차를 탄 고려인 중의 하나로서 당시 정황을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었다. 이렇게 새벽을 밝히며 쓴 작품68편을 모아 창작과비평사에서 발간한 시집이 <강제이주열차>이다. 발간 후 여러 언론을 통해 우리문학사의 빈 공백을 메꾸어준 매우 뜻 깊은 시집이라는 평을 들었을 때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 시집이 러시아말로 번역되어 러시아, 중앙아시아 전 지역의 고려인들에게 다가가서 눈물로 읽힐 책이 되었으면 하는 갈망을 나는 갖고 있다. 이 글을 쓰는 중 한국문학번역원 김사인 원장이 연락을 해 와서 이 시집의 번역본 출판을 위해 전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겠노라는 격려와 다짐까지 받았다.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에서 이 시집과 더불어 펼쳐갈 수 있는 활동의 분야도 모색이 되었으면 하는 갈망을 가진다.



강제이주열차

이동순 시집
2019.08.30. 발간
값 13,000원
러시아어 번역본
출간 예정!

공희정 작가 연재 (1)

항일무장투쟁의 영웅 홍범도 장군

<탄생과 성장기> 1868 - 1895

격변의 시대, 어린 고아의 마음엔 투쟁정신이 싹텔다



여천(汝千) 홍범도(洪範圖)장군에게 항일무장 독립투쟁은 삶 그 자체였다. 근대화의 물결 속에 온 세계에 거대한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을 때, 평양외성 서문안에 있는 문열사앞에선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 태어났다.

1868년 8월 27일. 아버지 이름이 홍윤식(洪允植)이라는 것이외는 별반 알려진 바가 없는, 그것이 당연한 하층민 집안의 아이였다. 그해 한양에선 임진왜란 당시 전소된 경복궁이 270여년만에 재건되어 정궁(正宮)으로 사용되기 시작했고, 일본에서는 메이지 유신이 단행되었다.

세상 빛을 본 지 일주일 만에 어머니는 돌아가셨다. 아버지는 젖동냥으로 핏덩이를 키워냈지만 아홉 살이 되던 해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났다. 의지할 곳 없던 그는 숙부의 도움으로 남의 집 머슴이 되었다. 천대와 괘시, 학대와 무시는 은연중에 그의 마음 안에 세상을 향한 투쟁심을 심어놓았다.

열다섯 살이 되던 해, 무산자(無産者)에겐 희망적 내일이 없음을 알게 된 그는 머슴보다야 군인이 나을 것이라 생각했다. 나이를 두 살 올려 평양 감영 소속 부대의 나팔수가 된 그는 툼툼이 사격술을 배우고 제식훈련을 받았다. 그것이 의병이자 독립군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출발점이었음을 그때 그는 몰랐을 것이다.

군인이 되었지만 부패한 군대는 차별과 폭행이 일상이었다. 옳지 않음을 보아 넘길 수 없었던 그는 자신을 괴롭히던 장교를 죽인 뒤 그날로 군대를 빠져나왔다. 그때가 1887년, 갓 스무살이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의지할 곳 하나 없는 처지였다. 그때 황해도 수안에 가면 종이를 만드는 공장이 있는데 먹고 살만 할 것이라 했던 군대 동료의 말이 떠올랐다. 오라는 곳은 없지만 살기 위해 발길을 옮겼다. 다행히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다.

군에서 도주한 입장이자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지내며 제지 기술을 익혔다. 공장 주인은 폭언과 폭력을 일삼았고 심지어 품삯마저 일곱 달이나 주지 않았다. 결국 그를 때려눕히고 홍범도는 제지 공장을 떠났다. 본의 아니게 연거푸 사람을 다치게 한 그는 복잡한 세상을 떠나 한적한 곳에서 잠시 생각을 정리하려했다. 그렇게 가다가 도착한 곳이 금강산 신계사(神溪寺)였다. 스물 두 살의 홍범도는 그곳에서 지담(止潭)스님의 상좌로 삭발승이 되었다. 말이 좋아 상좌이지 절에서 필요한 온갖 잡일을 하는 행자이었지만 그에게겐 이보다 좋은 안식처가 없었다.

지담스님의 법문과 설법으로 마음의 평정을 찾을 수 있었고,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구국항쟁 이야기를 들으며 항일 의식을 갖게 되었다. 글을 제대로 배워본 적 없었지만 어깨 너머로 배운 한글은 신계사에서 지내는 동안 긴 편지를 쓸 수 있을 만큼 익숙해졌고, 한문도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신계사 인근에 있는 비구니 절의 여승을 알게 되었다. 청춘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름은 이옥녀²⁾ 평생 함께 할 것을 약속한 그들은 금강산을 떠났다. 집도 절도 없는 그곳기에 그녀의 고향인 함경도 북청으로 가서 살기로 했다. 그러나 운명은 쉬이 그들의 평온한 삶을 허락하지 않았다. 도중에 만난 건달패 무리들에 의해 두 사람은 헤어지고 말았다. 만삭의 몸이었던 이옥녀는 간신히 풀려나 천신만고 끝에 고향 북청에 갈 수 있었고, 그녀가 죽은 줄 알았던 홍범도는 상심한 마음을 안고 세상을 떠돌았다. 강원도 회양 먹패장골에 이른 그의 행색은 추려했지만, 날카로운 눈빛이나 떡 벌어진 어깨를 보면 산에서 내려온 포수같았다. 그런 그에게 누군가가 화승총을 사지 않겠냐고 다가왔고, 군대에서 총을 잡아본 적 있는 그는 포수로 살아도 좋겠다는 생각에 밀천을 다 털어 총을 샀다. 그리고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 3년간 머무르며 농사를 짓고 총연습을 했다. 무쇠는 단련될수록 강해진다고 했듯이 그의 총숨씨는 하루가 다르게 변해갔다.

* 본 원고는 <빨치산 대장 홍범도 평전>(김삼웅), <역사인물 동화 홍범도>(신중진), <홍범도 장군>(반병률)을 기본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항일무장투쟁의 영웅, 홍범도장군>은 총5회에 걸쳐 연재될 예정입니다.



공희정 작가

2006~2012 조선닷컴 <드라마 살롱> 연재
2015~2016 서울신문 <컬처 살롱> 연재
기타 주간조선, 한국일보, 국민일보, joins닷컴 등에 방송 관련 글 연재

현재 mbc 시청자 평가원으로 활동 중, 인사이드 케이블 <케이블 살롱> 진행
저서 : <기자가 말하는 기자> (공저), <드라마의 모든 것> (공저)

1) 본관은 남양(南陽) 홍씨. 남양은 지금의 수원과 화성 일대의 옛지명이다.

2) 단양 이씨인 그녀의 이름은 이옥녀라 알려져 있지만 이옥구라는 설도 있다.

독립전쟁 전승 100주년 기념사업 준비 착착... 2020년 정부예산안 12억7천6백만원 반영!



기념사업회는 내년 2020년 봉오동·청산리전투 전승 100주년을 맞이하여 ‘독립전쟁 전승 100주년 사업’을 위한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2020년 정부 예산(안)에 정부보조사업으로 12억7천6백 만원이 반영되었다.

100주년 기념식을 포함해, 국제학술회의, 고려극장 초청 순회공연, 기념서적의 발간 및 출판기념회, 음악회, 다큐멘터리 제작 등을 추진 중이다.

국제학술제의 경우, 보조사업과는 별도로 독립기념관 직접사업으로 8천만으로 반영된다.

다른 무장독립운동가 기념사업회와 협의하여 공동사업도 추진 중에 있어 어느 때보다도 의미있고 전 국민적인 관심을 받을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10월 25일 국회서 서거 76주기 추모행사 및 독립전쟁 전승 100주년 준비를 위한 학술회의 개최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는 홍범도장군 서거 75주기를 맞아 순국일인 10월25일 국회에서 추모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기념사업회 회원과 보훈단체 임원, 학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원식 이사장의 추모사, 헌화분양 등으로 추모식을 엄숙히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독립전쟁 전승 100주년의 의의와 역사 인식>이라는 주제로 독립전쟁의 역사성 계승을 위한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내년은 우리 독립군이 일본군을 상대로 최초로 승리한 봉오동전투 전승 100주년이자 독립전쟁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역사학자 반병률 한국외대 사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어 장세운 동북아역사재단 수석연구위원, 이상훈 육군사관학교 교수, 김용달 독립운동사연구소 소장의 주제 발표가 아래와 같이 있을 예정이다.

장세운 (동북아역사재단 수석연구위원)

- 홍범도 일지 재검토를 통해 본 봉오동·청산리전투

이상훈 (육군사관학교 교수)

- 봉오동전투에 대한 일본 측 전과기록의 검토

김용달 (독립운동사연구소 소장)

- 한국독립운동에서의 항일무장투쟁과 그 역사적 의의

우원식 이사장, 항일무장독립투쟁 100주년 기념사진전 참석



제74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둔 지난 8월14일, 서울 서대문독립공원에서는 항일무장독립투쟁 100주년 기념 사진전신회 ‘만주벌의 별이 되어’ 제막식 행사가 개최됐다.

우원식 이사장은 이날 무장독립투쟁의 대표적인 영웅인 홍범도장군을 기리는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를 대표하여, 축사를 통해 “광복은 결코 밖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선조들이 나라를 빼앗길 날부터 독립을 되찾는 날까지 죽음을 무릅쓰고 함께 싸워 이겨낸 결과”라며 “독립을 향한 굳은 의지와 실천이 있었기 때문에 독립이 가능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일본의 경제침략과 관련해 “우리 국민들은 100년 전과 같이 부당한 간섭과 침략에 맞서 분노하고 제대로 싸워서 이길 자신이 있다”며 독립정신 계승 의지를 전했다.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임원회의 개최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임원회의가 지난 9월 5일 여의도에서 개최됐다. 이 날 진행된 임원회의에서는 11명의 신임이사가 선출되었고 임명장이 수여됐다.

논의안건으로는 정관에 따른 이사회를 격월로 개최하여 이사회를 정상화하고, 임원회의는 이사장 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는 것으로 제안되었으며, 2019년 하반기까지 월1만원 후원회원 1,000명 모집 운동이 제안됐다.

보고사항으로는 기념사업회 사무처 우경옥 간사가 일신상 사유로 간사를 사임했으며, 이영철 이사가 유선상으로 사의를 표명해 왔다.

고려극장 '날은 홍범도' 연극 단체관람, 영화 '봉오동전투'단체 관람, 음악극 '극장 앞 독립군' 단체관람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앞으로 있을 홍범도장군 순국76년 추모식 및 학술제 준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신임이사 임명장 수여

9월5일 임원회의를 통해 11명의 신임이사가 선출되었다. △삼성경제연구소 부사장 부윤경 이사 △노원구자전거연합회 회장 김수승 이사 △노원구 자연계연맹 상임고문 남궁정 이사 △사진작가 우난혜 이사 △한국노총부위원장 문현균 이사 △평창군수 한왕기 이사 △미르나인 대표이사 정관균 이사 △조이 세무회계 대표 김형상 이사 △하나카드 자문위원 정수진 이사 △서산시복지재단 이사장 임태성 이사 △한국리싸이클링 대표이사 이재호 이사 등 총 11명이다. 이날 임원회의에는 부윤경 이사, 김수승 이사, 정관균 이사, 김형상 이사, 정수진 이사, 임태성 이사, 이재호 이사가 참석해 우원식 이사장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았다.



기념사업회 세무업무 지원을 맡아줄
신임이사 김형상 조이 세무회계 대표

우원식 이사장, 독립운동가 후손 국회의원들과 독도 방문



우원식 이사장은 지난 8월 31일 오전 독립유공자 후손 국회의원들과 독도를 방문하여 일본 아베 정부 경제침략에 대한 규탄과 영토 수호의지를 다지고 돌아왔다. 이번 독도 방문은 민주당 이종걸·우원식·권철승·김한정·박찬대·이용득 의원, 무소속 손금주·이용주 의원과 김원웅 광복회 회장과 함께했다.

임원 동정



황원섭 부이사장

지난 8월 5일 발간된 월간 순국지 8월호에 '카자흐스탄의 고려극장과 홍범도 장군'을 주제로 투고하였다. 지난 8월 20일에는 한겨레신문에 "무명순국선열 추모비를 건립하자"는 제하에 영화 봉오동 전투를 회상하며, 독립전쟁에 참여한 무명 순국선열에 대한 추모사업을 강조했다.



홍성종 이사(토금산업회장)

규장각에 보관되어있는 조선후기의 학자 초산 홍길인선생의 서첩과 문집인 초산현유고를 한글로 번역 출간하여 국회도서관을 위시한 전국대학 및 유명 도서관에 기증하여 250여년전의 시대상을 돌이켜 보도록 하였다.



김현정 이사(사무금융노조 위원장)

9월23일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할 경우 대출금리를 인하해주는 '마이크로 크레딧' 업무협약식을 서울특별시와 체결했다. 9.1부터 민주평통자문위원, 9.20부터 민생경제연구소 운영위원장을 맡게 되었다.



문현군 이사(한국노총 부위원장)

연해주를 찾아 최재형 선생님의 고택과 홍범도 장군님의 추모비까지 방문하고 강제이주로 인한 고려인들의 삶을 살펴보고 돌아왔다. 경 사 노 위 (경 제 사 회 노 동 위 원 회) 의 비정규직대표근로자위원으로 선임되었다.



유용 이사(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7월26일 제23회 대한민국 의정대상에서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8/22~9/6까지 임시회가 열렸으며, 창업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창업활성화를 위해 힘썼다.



오세중 이사(대한변리사회 회장)

9월 19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GNIPA에 참석해 해외 변리사 단체장 및 특허청 관계자들과 지식재산 제도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영국, 독일, 프랑스 변리사회 및 유럽특허청(EPO)을 방문해 세미나 등 교류행사를 갖고 각국 지식재산 동향에 관한 정보를 공유했다.



김경호 이사(전 주러시아 대사관 정무공사)

지난 8월 27일에 진행된 북한대학원대학교 통일미래최고위과정에서 '블루오션 유라시아 이해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고, 10월 8일에는 서울예술대학교에서 강연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익훈 이사(한국환경공단 물환경본부장)

9월5일 대한민국 국제 물 주간에 개최된 '월드워터챌린지' 심사위원장으로 참가했다. 본 행사는 2015년부터 세계 각국이 당면한 물 문제에 대한 도전과제와 이를 극복한 각 국의 사례를 평가 시상하는 국제행사로, 대한민국의 선진 물 관리를 널리 알리는 행사다.



최윤 이사(E3플랜비 대표이사)

7월 28일 전국 518민주화운동유공자단체 회장 취임했고, 이후 9월 1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의장, 강원회의 회장에 취임했다. 9.28일 강원민주재단의 이사장에 내정되었다.



유정배 이사(대한석탄공사 사장)

석탄에서 수소가스를 추출해 수소연료전지를 생산하는 사업에 도전하기 위해 대규모 플랜트 IGCC발전기가 있는 한국서부발전을 방문했다. 석탄을 청정에너지로 변화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사무총장에 한동건 이사, 사무국장에 이화 임명



**한동건 이사
(신임 사무총장)**



**이화
(신임 사무국장)**

기념사업회는 앞으로의 독립전쟁 100주년 사업 준비와 기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직을 재정비했다. 우원식의원실 수석보좌관 서준오 사무총장을 사임시키고 기념사업회 한동건 이사를 사무총장에 보임했다. 한동건 신임 사무총장은 "항상 사회적 약자와 정의의 편에서 활동하시는 이사장님 그리고 기념사업회의 모든 활동을 지원해주시고 힘을 불어 넣어주시는 이사님들, 회원님들과 함께 멋진 기념사업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사무국장에는 이화 전)불광미디어 경영기획실장이 10월1일자로 임명될 예정이다. 이화 신임 사무국장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불교텔레비전 대외협력실장과 불광미디어

경영기획실장을 역임했다. "사무국장 소임을 맡아서 일하게 돼 자랑스럽다."며 홍범도 장군의 숭고한 독립정신의 뜻을 이어가는 사업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여러분의 정성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임원 연간회비 입금현황

2019년 이사장 우원식 명예이사장 이중찬 부이사장 황원섭 이사 홍성덕 홍성중 이미자 홍이표 오세중 정내하
한동건 홍순계 김현정 남인순 박완주 김현권 홍의락 김찬 한승관 이경철 최익훈 석순용 김용환 김준묵 유정배
조태수 부윤경 김수송 우난혜 남궁정 문현군 한왕기

CMS회원 회비 입금현황(2019.09 현재 105명)

김우진 김태원 이주열 이병국 김대환 황종섭 최재호 김옥찬 조봉현 나명현 강도연 김상우 박태근 이승룡 김관표
지예은 정상섭 정동준 전흥기 전 준 전광출 이원형 안영수 성은하 서경민 박준영 박국진 김준수 김정식 김재형
김성현 김대영 김권석 전성배 정준수 민기식 홍정희 노용기 맹진규 여은석 임헌문 윤여각 정은숙 설정선 조영제
우문식 신재면 배규식 김창환 박선원 강태영 이태준 서 민 조현재 김사엽 김준영 이정원 김성애 김영숙 이우엽
김양미 천상영 정두영 이순자 고희오 이성미 김영진 JIN CHUNXING 지애숙 김도식 이지선 정성관 이수연 김성순
송정화 정종우(하나카드) 김현정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홍영만 김미자 석진경 엄기인 김신애 조영옥 이행란
김미선 김성미 김선자 박점조 석혜경 손여록 신완철 장송희 정윤미 지영순 지현주 양미숙 여상연 이병룡 이영란
이은영 이영희 최향수 허양순 이은우 배영실

임원명단

이사장 우원식(국회의원)

명예 이사장 이중찬(국립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건립위원회 위원장)

부이사장 황원섭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공동대표)

감사 박형상 (변호사, 전 서울중구청장)

이사

홍성덕(전)주독일한국대사관공사, 손양호(조계종중앙박물관후원회장), 류병균(평화전략연구소장), 홍성중(토금산업 회장), 이미자(전
종로구의회 의원), 홍중표(강동수산 대표이사/회장), 이영철(4.19포럼기념사업회장), 홍재구(당정사적보존회 회장), 홍이표(하이리빙 대표),
손광춘 (출판사 수서원 대표), 김경호(전 러시아대사관 정무공사), 오세중(현 대한변리사회 회장), 정내하(쥬미네랄하우스대표), 한동건(쥬
태백자원개발 대표이사), 유용(서울시의원), 노정래(쥬건화 감리CM본부사장), 홍순계(BK연금보험 상근감사위원) 김찬(한국사학진흥재단
사무총장), 김용환(전 한남대 부총장), 김준묵(사)혁신경제 이사장, 김현권(국회의원), 김현정(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남인순(국회의원), 박완주(국회의원), 석순용(특허법인 신세기 대표), 위성곤(국회의원), 유정배(대한석탄공사 사장), 이경철(서울 노원구의회
의장), 이명식(새마을운동중앙회 사무총장), 이승중(네무스텍 대표), 조태수(주)다현커뮤니케이션즈, 최윤(E3PLANB플랜비 대표이사),
최익훈(한국환경공단 물환경본부장), 한승관(대한변리사회 회원이사), 홍의락(국회의원)

신임이사

부윤경(삼성경제연구소 부사장), 김수송(노원구자전거연합회 회장), 남궁정(노원구자전거연맹 상임고문), 우난혜(사진작가),
문현국(한국노총부위원장), 한왕기(평창군수), 정광균(미르나인 대표이사), 김형상(조이 세무회계 대표), 정수진(하나카드 자문
위원), 임태성(서산시복지재단 이사장), 이재호(한국리싸이클링 대표이사)

새롭게 단장한 기념사업회 홈페이지, www.홍범도.com을 소개합니다!



PC버전



모바일



모바일

어느 기기에서도 쉽고 빠르게 **홍범도장군과 기념사업회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도록 개편되었습니다!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와 함께 독립을 완성해 갑시다!

후원안내 신한은행 100-027-188760 (사)여천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회원가입 ☎ 02-784-3601

홈페이지 www.홍범도.com (회원가입 클릭!)



회원가입